KBS 국악한마당 남원서 연다

20일 저녁 7시 30분 판소리 · 창작 국악 · 민요 · 춤사위 등

KBS는 자사 프로그램인 국악한마당을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국악의 성지인 남원에서 연다.

오는 20일 저녁 7시 30분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열리는 KBS 국악한마당은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의 여정을 시작하는 공연으로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국악의 정수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순섭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비나리 명인 이광수와 민족 음악원의 무대, 김수연 명창의 춘향가 중 '춘향모 통곡하는 대목', 억스(Aux)의 창작 국악 '남원가는 길', '사랑가', 소리꾼 신진원의 민요 연곡,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의 화려한 춤사위 등이 펼쳐진다.

KBS 국악한마당은 명인의 전통 음악에서부터 우리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예인들의 음악과 꿈나무 어린이들까지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이며, 방영은 8월 4일 오후 1시로 KBS 1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전주문화재단과 MOU 체결

맞춤형 인력양성 · 공동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 위한 교류

원광대학교와 (재)전주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대 회의실에서 지난 13일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은 지역 문화관광콘텐츠 교류 및 양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광대 산학협력단 및 LINC+사업단과 (재)전주문화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인력양성을 비롯해 지역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에 뜻을 모았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과 문화발전 관련 공동사업, 지역사회 수요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재)전주문화재단은 팔복동에 위치한 카세트테이프 생산 공장 일대를 전주시에서 매입해 문화공간 '팔복예술공장'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학교와 (재)전주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2회 추담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4일부터 2일 간 부안예술관 공연장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부안 추담국악경연대회 성공리 완료

서울을 비롯한 각도에서 200여 명의 예비국악인 참가

판소리의 명인 홍정택 선생의 국악정신을 기리는 제12회 추담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4일부터 2일 간 부안예술관 공연장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이한수 부안 군의회 의장, 한국 국악협회 중앙이사장과 기관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추담판소리보존회(이사장 김세미) 주최. 주관한 제12회 추담국악경연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각도에서 200여 명의 예비국악인이 참가하여 각자의 국악기량을 겨루었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서 이뤄진 이 본 대회는 일반부에서는 판수리 대상 이희정씨(국회의장상) 기악 · 무용 종합대상 김은숙씨(문체부장관상) 기악 일반부 대상 김진수(전북지사상) 신인부 대상 김수호(한국국악협회이사장상) 무용 최우수상 선전능(부안군수상) 과 학생부 종합대상 송지연(교육부장관상)이 차지했다.

이날 대회를 주관한 사)추담판소리보존회(이사장 김세미)는 대회를 마치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연구하고 대회의 질을 높여 명실공히 국악인 배출 관문으로서, 명가를 높여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국악예술단 고창, 창작국악 가족뮤지컬 '못난이 모로'

19일 고창문화의전당서 무료공연

올해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창문화의전당 상주예술단체 '국악예술단 고창(高唱)'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창작국악 가족뮤지컬 '못난이 모로'를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에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

'국악예술단 고창(高唱)'은 2009년에 창단해 2015년 전라북도 지정번호 제 36호 전문예술단체 지정과 2017년 표창패 수상(고창군) 등 저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열정과 패기로 뭉친 젊은 국악예술 단체다.

지난해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전석매진을 기록해 흥행성을 검증 받은 작품 창작 국악 가족뮤지컬 못난이 모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을 작품 배경으로 '모~옷 생긴 로맨티스트' 모로와 친구들의 사랑이야기를 아기자기하고 예쁜 동화 같은 무대, '국악예술단 고창(高唱)'의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연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신나는 안무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캐스팅, 안무, 무대 등 지난해 공연보다 업그레이드를 더해 관객몰이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동심을 품고 있는 아이들과 마음 깊숙이 아직도 동심을 품고 있는 어른들이 함께 보는 '못난이 모로' 공연 관람을 통해 가족들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뜻깊고 특별한 추억,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전석 좌석지정제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현장 티켓 발권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화가 있는 날'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 선보여

순창군, 25일 어린이 대상 특별한 공연

순창군은 7월 중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오는 25일 향토회관에서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순창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연단인 경기도립국악단이 기획한 곰돌이의 여행은 '모모'로 유명한 독일의 세계적인 동화작가 '마하엘 엔데(Michael Ende)'의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을 모티브로 삼아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함께 우리 악기와 민요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2015년 '자장자장 할머니가 들려주는 '곰돌이의 여행' 초연이후 세 번째로 선보이는 '곰돌이의 여행'은 극중 마고할미의 등장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기존 서양음악 위주 뮤지컬 공연에서 벗어나 국악배우 및 국악단의 연주로 한국적인 색깔을 가미해,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대상은 3세에서 10세까지로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학생들의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간 성인 위주의 문화공연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유치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